

시대정신과 복식조형성과의 상관성(제1보) -르네상스와 포스트모던시대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박 숙 현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Correlation between the Spirit of Times and Characteristics of Clothing

-Similarity between Renaissance and Post-modern Period-

Sook-Hyun Park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 Sung University

(2000. 10. 25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pirit of the tim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ra's clothing in Renaissance and Post-modern Period. Theoretical studies about the "spirit of tim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lothing about each time were preced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Similarities of "Spirit of times" were 1) emphasis on humanity 2) anti-centralization 3) destruction of social status 4) deconstruction of christianity in Renaissance and modernism in Post-modern Period

Similarities of "characteristics of clothing" were 1) emphasis on erotic aspects of female body 2) emphasis of erotic aspects on clothing 3) tendency to revert to the old fashion 4) popularization of certain social group's fashion 5) tendency of deconstructionism in fashion 6) tendency of "No match mix" 7) androgynous style.

Key words: spirit of times, post-modernism, characteristics of clothing, deconstructionism;
시대정신, 포스트모더니즘, 복식의 특성, 해체주의

I. 서 론

20세기말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 및 조형물의 형태는 절충주의적 경향과 함께 전통적 규범에 대한 비판과 해체의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20세기초에 형성된 모던디자인은 기능적 순수함이라는 기능주의의 이념 위에 탄생되었다. 이러한 모더니즘은 하나의 디자인양식

으로 조형물의 형태를 결정짓는 기준으로서 뿐 아니라 우리 삶의 형태를 확립해 준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와 기술적 축적으로 다양한 삶의 형태가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경제적 효용성에 입각한 모더니즘 양식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소비자를 전제로 하지 않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산의 원리에

기초했던 모더니즘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 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삶의 의미를 더 중요한 원리로 간주하는²⁾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20세기 후반기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로의 변화과정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중심이 되어 그 시대의 모든 사회생활을 지배하였던 단일중심체제의 고딕시대에서 억압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 탈 종교화를 내세우며 르네상스로 이행해간 시대적 변화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와 시대정신의 영향을 받아 창출된 복식이라는 조형물이 유사한 시대정신 하에서 유사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상관성을 규명하여 앞으로의 시대정신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패션의 방향 제시에 도움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으로서 르네상스 시대에 관한 고찰은 문화사, 풍속사, 미술사, 누드사, 복식사 등의 역사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포스트모던 시대에 관한 내용은 디자인 양식사, 미술사조 그리고 현대 패션사 등과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르네상스는 15~16세기를 중심으로 그리고 관련 그림 자료는 15~16세기 회화작품을, 포스트모던 시기는 20세기 후반기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중심으로 그리고 관련 그림자료는 포스트모던 경향이 잘 표현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유명 디자이너 콜렉션에 나타난 작품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고찰 부분 중 복식에 관한 고찰 부분에는 복식 형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당대 인체에 관한 미의식을 함께 포함하여 그 유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시대정신과 복식의 특성

복식은 인간의 내적인 사고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환경 즉 정치·경제·사회·예술적 현실을 복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문화의 총집합체라 할 수 있다^{3, 4)}. 이것은 복식이 한 시대의 일반적인 정신적 도덕적 관념이나 취향, 그리고 문화현

상인 시대정신⁵⁾의 영향을 받아 그 시대의 미적 가치를 표출하는 조형물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각 시대별 시대정신을 형성한 사회 문화적 현상과 복식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르네상스시대

프랑스어인 르네상스(Renaissance)란 이탈리아어 리나시타(Renascita)에서 유래된 말로 재생 부활 부흥이라는 의미를 지닌 용어로 중세를 암흑시대로 생각했던 14~15세기 이탈리아 저술가에 의해 불려졌다⁶⁾. 이는 1350년경 이후의 이탈리아인들이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적 업적을 새로이 인식하여 사멸되었다고 생각했던 고전문화를 재생시키는 일에 몰두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르네상스는 단지 학문 및 문화사에서 의 한 시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 즉 지적 예술적 국면은 물론 정치 경제 종교적 국면까지도 변화시킨 하나의 독특한 “르네상스 정신”을 만든 시대였다고 알려져 있다⁷⁾.

르네상스시대 도시와 상업의 발달은 개인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능력에 따라서 평민이 거부도 귀족도 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주면서 인간의 의식과 문화에 큰 진보를 가져오게 한 계기를 마련했다⁸⁾. 13세기말부터 이탈리아 시인들 가운데 고전 고대 문예를 부흥시키려는 기운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운동은 중세 이래의 신학중심의 학문체계에 반기를 들고 보다 인간다운 학풍을 추구하면서 생겨났는데 이는 고대의 학예를 부활시킴으로써 교회적 권위 아래 질식되어 가고 있던 자연스런 인간상을 회복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르네상스에 이르러서는 휴머니즘의 영향으로 고대에서와 같이 자연을 인간중심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구호는 다시 르네상스인의 좌우명으로 부활되어 개인주의와 세속화 경향이 확산되었다⁹⁾. 르네상스는 수많은 지적 문화적 진보를 이룩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영속적인 업적으로 남은 것은 단연 예술분야였는데 그 중에서도 회화의 세계는 최고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르네상스는 하늘을 지상으로 끌어내림으로서 만물로부터 신비성을 박탈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에게서 신비성을 박탈했다. 지상의 삶의 도구가 된 인간의 육체는 결국 지상의 쾌락을 위한 이상의 도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대는 남성은 더욱 남성적으로 보이도록 여성은 더욱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여 남녀의 성특징을 가능한 명확히 강조하는 목적 미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 목적미라는 것은 에로틱한 미를 의미한다⁴⁰.

여성 복식은 중세 기독교의 영향 아래 무시되었던 가슴을 강조하기 위한 데콜레 네크라인과 가는 허리의 강조, 그리고 그리스 로마시대의 영향인 듯한 스커트의 드레이퍼리(Drapery)를 이용한 스커트의 부풀림에 의한 엉덩이와 복부의 강조 등으로 고딕시대의 길고 단순하고 직선적이며 딱딱한 형태의 스타일에서 여성인체의 곡선을 아름답게 표현 할 수 있는 스타일로 변화하였다. 남성복식도 상체를 강조하고 하체를 가늘게 하여 역삼각형 실루엣을 만들어 성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르네상스복식에 나타난 특징 있는 새로운 디자인은 슬래쉬(slash) 패션이다. 슬래쉬는 스위스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칼자국이 났거나 낡아서 헤어진 구멍에 천을 대어 수선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41, 42} 이 슬래쉬 패션은 독일에서 가장 유행하여 유럽전역으로 퍼져나갔다.

2. 포스트모던시대

20세기 후반기로 오면서 모더니즘은 급변하는 현실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과 개혁의 지에서부터 새로운 양식의 태동을 가져왔는데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 명명되어 졌다⁴³.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용어가 널리 파급되어 논쟁을 불러일으킨 시대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나 지금까지도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에 대한 의미에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44, 45} 포스트모더니즘이란 기본 성격이 확고한 고정범주에 머무는 것이 아닌 극도의 탄력적 속성을 지니고 각각의 독특한 영역 사이의 경계를 와해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형성되어진 후기 산업사회 즉 대중에 의한 소비사회에 나타난 문화

현상을 본 연구와 관련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던시대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지배계층은 대중 통치의 한 방편으로 개인적 열정, 정서, 감정 등을 지성, 이성 그리고 보편적 질서 속에 종속시켰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시대에 오면서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어 디오니소스적 특성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⁴⁶. 기존지배체제나 지배계급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에 따라 사람들의 살아야만했던 모던시대와는 달리 중심부의 단일한 이론에 의한 유기적인 통일과 총체성보다는 사회자체의 단편화와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가 더 중시되는 탈 중심화되는 시대가 되었다⁴⁷. 대중문화의 관련성에서부터 출발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은 여전히 대중문화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모더니즘 사회에서의 대중은 주체가 아닌 객체였으며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위치한 소외된 계층이었다. 대중들은 교육을 받은 자, 지식인, 화이트 칼라로 지칭되는 엘리트 중심주의 사회 속에서 고급문화의 중심에 머물 수 없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던시대에 형성되어진 거대한 장벽들을 허물어뜨리면서 탈 계층화 현상이 일어났다⁴⁸. 플라톤 이래의 서구 형이상학 근본 이론에 대한 강력한 반발인 동시에 기존의 고정 관념적 중심성을 해체하고 “타자 인식적 사고”를 태동시켜 “억압된 것의 복귀현상”을 일으킨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선언 이후 해체주의적 사고와 이에 바탕을 둔 조형물이 등장하였다⁴⁹.

포스트모던 시대의 경제논리에 아주 잘 적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패션이 부각되고 있다. 20세기 후반기 오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하에서 디자이너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들을 동시에 도입하게 됨으로써 패션에 다원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패션에는 어떤 규칙도 없이 어느 시대의 어떤 스타일이 복합되었는지도 모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복식에 대한 관심은 ‘지식에서 경험으로’, ‘이론에서 실제로’ ‘마음에서 몸으로’ 변천하는 등 지식의 강조에서 존재의 강조로 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적인 변천과 일치한다²⁰⁾.

이성과 지식, 본질적인 가치 등 형이상학적인 기준을 중시하던 모더니즘적 사고관에서 육체와 물질적인 것의 가치를 더욱 중시여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육체는 성의 상품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슬림한 전체 실루엣에 신체의 가장 은밀한 곳을 제외한 인체 각 부위의 과도한 노출, 몸에 밀착된 복식을 통해 인체곡선을 강조하는 바디 컨셔스 라인(Body Conscious Line)의 과장 등으로 패션계는 에로틱한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다. 60~70년대 하위문화 집단에 의해 나타난 반 패션이 90년대 들면서부터 새로운 유행경향으로 대중화 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복식 규범을 깨는 해체주의적 복식도 많이 나타났다.

Ⅲ. 시대정신과 복식조형성과의 상관성

1. 시대정신에 나타난 유사성

(1) 인간성 회복: 르네상스시대 고대문예를 부흥시키려는 운동은 중세의 신학중심의 학문체계에 반기를 들고 고대의 학예를 부활시킴으로써 교회적 권위 아래 질식되어 가고 있던 인간성을 회복하려고 한 것이었다. 르네상스시대 휴머니즘적 사상의 영향은 자연을 인간중심으로 다시 생각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사고의 영향으로 인간의 본능과 감정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고대의 자유분방했던 관능을 소생시킨 시대였다²¹⁾. 또한 이러한 사상은 육체를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존중시켜 모든 예술에 누드가 나타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서구철학의 근원을 이룩해 온 이성중심의 아폴로적 사고에서 인간의 감정·정서·관능이 중요시되는 디오니소스적 사고로 전환하면서 포스트모던시대가 도래하였다²²⁾. 인간 이성을 신뢰하는 형이상학에 도전장을 내면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에 억압당했던 낭만적인 감정과 인간의 정서 그리고 육체를 주요 테마로 내세우면서 인간 부활, 인간 해방을 부르짖으며 20세기 후반기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2) 탈 중심화: 르네상스에 이르러 종교에 바탕을

둔 중세적 세계관 및 인간관은 그 핵심적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부를 축적한 도시의 상공인들과 시민들은 이제 종교적 속박에서 벗어나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였으므로 기독교는 더 이상 이들을 지배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따라서 종교라는 중심 축이 무너지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사고와 삶의 형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인간중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20세기 전반기 사회를 형성하였던 모더니즘 사상은 보편적이고 단일한 삶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질서를 확립해 주었다. 포스트모던시대에는 모던시대 특권 계층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모범적인 전통보다는 다양한 사고의 홍수 속에서 각각의 개성적인 삶을 추구하여 통일된 전체보다는 다양한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탈 중심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3) 탈 계층화: 르네상스시대 화폐에 의한 상품의 매매는 소비의 확산을 낳고 이로 인해 부를 축적한 새로운 신중계급인 부르주와에 의해 물질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체제가 형성되었다²³⁾. 서민의 신분으로 태어나 부를 축적한 신중 부르주와 계급은 중세까지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었던 귀족계급을 따라잡기 위하여 그들의 예절, 대저택, 예술품, 그리고 복식을 모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르네상스시대부터 사제와 귀족만이 특권을 누리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물질에 의해 권력을 소지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인 신중 부르주와 계급의 권세가 귀족에 대응하는 탈 계층화 현상이 일어났다.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포스트모던 시대는 엘리트계층과 대중, 그리고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융합으로 탈 계층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모더니즘시대 타자로 소외당했던 억압된 계층의 복귀현상이 일어나며 권위아래 지배당했던 주변 것들이 세력을 획득하여 주체와 객체 사이의 구별이 사라졌다²⁴⁾.

(4) 해체주의 경향: 닫힌 체계에 대한 저항이며 동시에 불안정과 무질서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며 다양성과 열립을 추구하는 해체주의 경향은 기존의 전통과 규범체제를 파괴하여 기존의 억압적 권위에 대항하여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였다. 이성과 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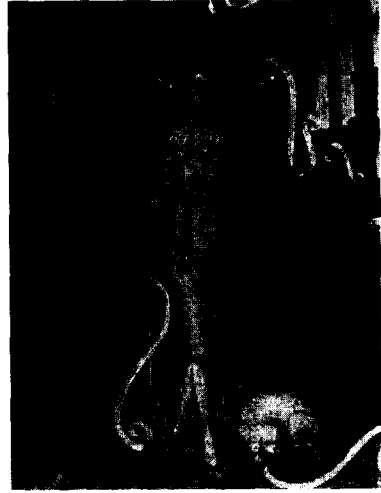
영혼과 정신, 그리고 사후세계의 삶을 중시하던 고딕시대의 종교적 사고관을 파괴하고 감성과 욕망, 육체, 현실에서의 쾌락적인 삶을 중시한 르네상스시대의 사고관은 이전시대의 기존관념을 와해시키는 해체주의적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시대는 모던시대에 구축해 놓았던 예언자적 엘리트주의와 권위주의, 전체주의, 이성중심적 사고관, 절대진리추구 등의 사고관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삶의 형태들 속에서 인간 개개인의 존재를 중요시하는 사고관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모던시대 형성되었던 모든 철학적 논리의 중심주의 즉 서양 중심주의, 말 중심주의, 소리 중심주의, 남성 중심주의, 엘리트 중심주의 등을 거부하면서 전통을 파괴하고 새로운 현실을 꿈꾸는 해체주의적 기운이 일어났다(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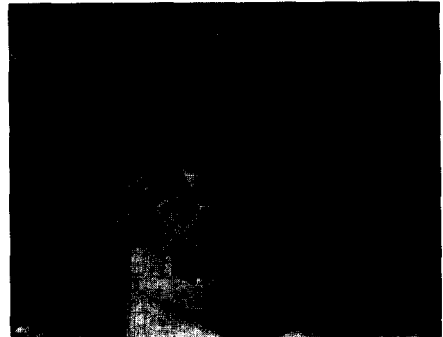
2. 복식에 나타난 유사성

(1) 인체에 대한 미의식의 변화: 한 시대의 육체관은 아름다움의 어느 한 범칙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이상형으로까지 높아지는 하나의 유형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그 형태를 따르도록 만든다(24). 르네상스시대는 관능적인 육체가 이상적인 유형이 되었으며, 그 이상적 유형이라는 것은 이성에게 격한 성적 욕망을 도발하는데 적합한 인체를 표현하는 것이었다(25). 이러한 인체에 관한 미의식의 변화에 따라 고딕시대의 가냘프고 인체곡선을 거의 드러내지 않던 실루엣에서 볼록한 유방 가는 허리 큰 엉덩이를 강조하는 실루엣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인체형의 변화는 누드화를 살펴보면 잘 나타나는데 중세형 인체 [그림 1]는 매우 빈약하고 르네상스로 오면서 풍만한 인체 [그림 2]가 나타난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는 상품화의 도구가 된 것처럼 모든 패션은 앞 다투어 여성의 인체곡선을 강조하고 인체를 노출한다. 현대는 인체가 쾌락을 가져다주는 도구로 여겨지면서 인체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성중심의 모던시대에 나타낼 수 없었던 서로 다른 성을 향한 욕망은 복식에 의한 신체노출 및 인체곡선의 강조로 나타나게 되었다. 큰 가슴, 잘록한 허리 그리고 큰 엉덩이를 보여주는 슈퍼모델들의 인기와 이를 닮아 가려는 여성들의



[그림 1] 작자미상, 15C, 세계 풍속사 下, p. 23



[그림 2] Bellini, 거울을 보는 여인, 1515, Nude Paintings on Art. Vol 2, No. 55.

심리는 가슴을 강조하기 위해 패드를 많이 넣은 브라지어의 상품화를 초래하였으며 성형수술의 성행을 불러왔다.

(2) 에로틱(erotic) 패션: 르네상스 시대는 여성 인체의 성적인 부분들을 강조했던 시대이므로 복식을 통해서 그 시대의 인체 이상형에 근접하게 보이도록 노력하였던 시대였다. 여성의 신체 중 에로틱한 면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가슴을 강조하기 위하여 네크라인을 깊이 파서 대부분의 가슴이 겹으로 드러나 보이도록 하는 데꼴페 네크라인이 유행하였다. 데꼴페 네크라인이 피부의 직접 노출을 통한 에로티시즘의 표현이라면 코르셋의 사용은 여

성 인체 곡선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또 다른 에로티시즘의 표현이었다. 코르셋을 통해 극도로 조여진 허리선은 가슴과 엉덩이의 곡선을 강조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르네상스시대 여성의 실루엣은 아우어 글라스(Hourglass) 형태로 나타났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는 상품화의 도구가 되어 인체를 노출하고 인체곡선을 강조하는 패션의 확산을 가져왔다. 브래지어나 코르셋을 걸음화하여 착용시키고 성기부분을 제외한 여성 신체의 모든 부분을 노출시키며 비치는 소재나 스판덱스 소재의 사용으로 매력적인 여성의 인체를 직 간접으로 강조하였다. 역삼각형의 몸매를 보여주었던 르네상스 남성상과 비슷하게 포스트모던 시대의 남성들도 성적 매력이 있는 역삼각형의 실루엣을 연출하기 위하여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여 근육질이 풍만한 신체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리고는 밀착하는 의복을 착용했을 때 어깨와 가슴, 팔 등의 근육이 그대로 드러나 보임으로써 성적으로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몸매를 연출했다. 남성의 가슴 부위에 원더브라(Wonder Bra)를 접착한 이색적인 티셔츠의 상품화²⁹⁾ [그림 3]가 이루어질 정도로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의 에로틱 패션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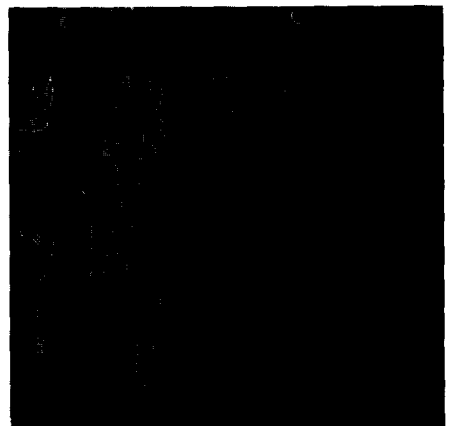
(3) 복고주의 패션: 르네상스 초기는 중세를 암흑시대로 비유하면서 그 이전시대인 그리스 로마시대

의 문화를 최고의 것으로 규정하고 모든 사고나 생활방식 등의 정신적인 것에서부터 건축·예술·생활품에 이르기까지 고전기의 것들을 발굴하여 이론을 체계화시키고 조형물들을 모방하고자 하였다. 복식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고전기의 얇고 부드러운 소재에 의해 흘러내리던 자연적인 주름을 형성하는 복식이 나타났다. 중세말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재단 재봉 기술의 발달로 상의는 입체적으로 봉제된³⁰⁾ 상태로 몸에 맞는 형태로 상체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살려주고 허리에서 주름을 주던지 벨트로 폭넓은 스커트를 조임으로서 자연스런 주름이 형성되도록 하였으며, 목둘레 소매끝 허리선 등에 고전기의 것과 비슷한 문양이 들어간 선을 낸 복식 [그림 4]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보들리야르는 “현재를 대면할 때 과거를 사용하곤 한다.” 라는 복고주의적 경향에 관해 언급하였는데 이는 20세기말의 예술양식 및 패션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 하겠다³¹⁾. 포스트모던 시대에 새로운 창조는 더 이상 없다는 사고 아래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양식을 모방하는 절충주의 경향이 팽배해지면서 예술작품이나 디자인 작품 등에도 복고풍 디자인이 유행하게 되었다. 90년대에는 패러디를 통한 과거의 이미지의 재조명이나 과거 이미지의 혼성모방 등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복고주의 패션들이 선보이고 유행하여 일반 대중의 패션 속에 침투하였다. [그림 5]는 기본셔츠에 르네상스 시대 복식요소



[그림 3] 브래지어가 삽입된 남성 상의 중앙일보, 1999년 5월 14일



[그림 4] The Betrothal, 1470,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 214.



[그림 5] Vivienne Westwood, '91 S/S Paris Collection

인 슬래쉬 장식과 코드피스를 응용한 의상이다.

(4) 소수집단 패션의 대중화: 르네상스시대 복식의 특징 중 하나인 복식요소인 슬래쉬는 십자군원정에 나간 군사들의 군복에 칼자국이 났거나 낡아서 헤어진 구멍에 천을 대어서 수선한데서 유래되었는데 패션으로서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귀족들 사이에는 슬래쉬 패션이 점차로 확산됨에 따라 과잉장식의 경향과 함께 극도의 사치 풍조를 조장하였으므로 일반인들은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까지 만들기에 이르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소비층으로 등장한 젊은 세대(young generation)는 기성세대의 사고와 관념 그리고 전통적 규범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60~70년대 기존사회에 저항하고자 한 젊은이들의 집단이 형성되는데 이들을 하위문화집단(sub-cultural group)이라 하였다. 이들은 의복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켜 그 당시는 그들의 의복을 반 패션(Anti-Fashion)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시간이 흐르면서 패션의 대중화 현상과 상상 가능한 모든 요소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물결을 타고 복식에 도입되는 시기를 맞이하면서 90년대에는 하나의 유행으로 많은 일반인들에게 전파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히피(Hippy)의

레이어드 룩(Layered Look)과 펑크(Puck)의 슬래쉬 장식 등이 하이 패션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길거리에서 시작된 소수집단의 패션이 가정으로 사회로 기성 패션 디자이너에게로까지 파급되어 나간 것이다. 이렇듯 어떤 소수집단의 필요에 의해 생긴 유행 요소가 하나의 패션을 이루고 대중화 된 사례는 두 시대에 나타난 공통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5) 해체주의 경향: 르네상스시대와 포스트모던시대는 기존의 복식규범을 파괴하는 해체주의적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르네상스시대부터 살펴보면 [그림 6]는 속옷인 슈미즈를 겉옷의 슬래쉬 사이로 노출시켜 겉옷의 장식요소로 사용함으로써 속옷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관념을 깨뜨린 복식이다. [그림 7]은 고딕시대부터 시작하여 르네상스시대에 성행하게 된 가짜소매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기능이 없는 장식적 요소로 쓰인 가짜소매의 성향은 해체주의적 경향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남성복에 있어서 또 하나의 해체주의 경향이 나타난 곳은 남성의 성기부분의 장식인 코드피스(cod-piece)에서 보여진다. 몸에 밀착된 쇼오스를 착용하면서 은폐의 주요부분이던 남성 성기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되었던 코드피스가 유행이 되면서 과도한 장식을 하기도 하고 크기도 확대되어졌다(그림 8). 남성복식에 나타난 또 다른 전형적 규범을 해체하는 패션은 특히 독일에서 유행했던 좌우 다리 색을 달리하고 슬래쉬 등 장식 디자인도 다르게 하는 언밸런스(unbalance)의장 [그림 9]의 유행이다. 그 당시까지의 관념으로는 하의의 좌우는 같아야 한다는 것이 고정관념이었는데 이러한 언밸런스한 패션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발상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슬래쉬 장식은 소재를 파괴하는 해체주의의 한 경향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기 패션에서 찢기 풀기 구멍 뚫기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포함해 휴지처럼 구겨지거나 휴지조각 같은 소재를 사용하는 것, 낡고 바랜 듯한 효과를 내는 것, 찢거나 오려내는 것 여러 가지 형태의 파괴적 해체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속옷의 겉옷화현상 또는 상의나 하의의 위치변동 [그림 10] 등의 의상도 해체주의적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 슈미즈에 의한 소매장식 1563, 서양복식문화사, p. 167.



[그림 7] Spain: Isabella Clara Eugenia,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 219.



[그림 8] Henri II, 1550,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 229.



[그림 9] German Landsknecht, 1530, Costume & Fashion, p. 76.

(6) 노 매치 믹서(No-Match Mix) 현상: 르네상스시대 천한 또는 하층은 계급에나 볼 수 있었던 낡아서 바래거나 찢어진 슬래쉬가 귀족의 아름다운 복식의 중심적 장식요소로 된 것은 포스트모던 시대 하위문화 집단에서 볼 수 있었던 천한 복식요소들이 하이 패션에 도입되어 노 매치 믹서 현상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경향이 있다. 이는 이전 시대에서는 반 패션(Anti-Fashion)의 요소(ex: 찢기, 울풀기, 레이어드룩등)였던 것이 일반화, 대중화되어 하이패션에 수용된 오프-키취(Haute Kitsch)적 현상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1]은 모피와

실크의 소재사용에 따른 고급이미지와 대중적인 블루진을 찢어 나타난 저급한 이미지의 키취적 요소가 함께 보여지는 복식으로서 노 매치 믹서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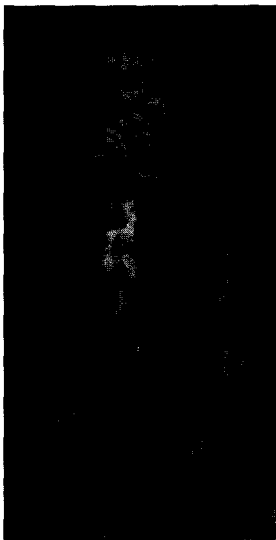
(7) 성의 양성화(Androgynous) 현상: 르네상스시대 남성들은 상체는 크고 위엄있게, 그리고 하체는 날씬하게 나타냄으로써 성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그들의 몸매를 과시했다. 따라서 하의는 대부분 반바지 형태의 오 드 쇼오스와 스타킹의 바 드 쇼오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대 남성바지 중 패드를 넣어 크게 부풀린 반바지 형태는 이전시대에



[그림 10] Jean Paul Gaultier, '90 S/S Paris Collection



[그림 12] Sir Walter Raleigh and his Son, 1590, The History of Costume, p. 237.



[그림 11] Vivienne Westwood, '91 S/S Paris Collection



[그림 13] Sir William Playters, 1615,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 235.

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여성복식의 스커트 실루엣과 비슷한 형태(그림 12)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17세기초에 이르면 완전히 스커트 형태 [그림 13]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비록 의도적으로 여성복식을 착용한 것은 아니라도 여성복식의 요소가 남성복식에 나타난 성의 양성화 현상(Androgynous)이라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던시대 억압된 성적표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회적 제 이론과 자아 정체성에 대한 재규정과 하위문화 등의 영향으로 서양사상속에 엄격히 구별되어온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경계가 와해되고 패션에서도 성적 불일치현상이 심화되고 있다³⁵⁾. 장 폴 고티에가 85년 발표한 자켓과 스커트가 한 벌인 슈트(그림 14)가 디자인계에 놀람과 충격



[그림 14] Jean Paul Gaultier, 85 A/W Paris Collection.

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성의 양성화는 포스트모던 시대 전통과 규범에 대항하여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자 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르네상스 포스트모던시대의 복

식과 시대정신에 나타난 유사성을 정리해 보면 < 표 1>과 같다.

IV. 결론

한 시대의 문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정신적 태도나 양식 또는 이념인 시대정신의 영향을 받아 그 시대의 미적가치를 표출하는 조형물의 하나인 복식이 유사한 시대 상황에서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르네상스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시대정신과 복식을 비교 고찰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대정신에 나타난 유사성은 첫째, 이성과 본질을 중시했던 고딕·모던시대에서 감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르네상스·포스트모던시대로 이행하면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중시되어 억눌려있던 인간성 회복운동이 일어난 점, 둘째, 통일된 전체 그리고 보편성보다는 개성적이고 다양한 객체가 모두 수용되는 탈 중심화 현상이 일어난 점 셋째, 르네상스의 신흥 부르주아계급, 포스트모던시대의 대중들이 새

<표 1> 르네상스·포스트모던시대의 유사성

	유사성	시기	
		르네상스 시대	포스트모던 시대
시대정신	1. 인간 감성과 육체를 중시하는 인간성 회복현상	영적인 것만을 중시하는 교회의 권위아래 말살되었던 인간성의 회복	이성중심의 모더니즘에 의해 억압했던 인간의 감성과 정서가 중요시되면서 개개인의 인간성이 회복
	2. 탈 중심화	탈 종교화	탈 모더니즘
	3. 탈 계층화	귀족과 신흥부르주아 계급(시민)	대중과 엘리트
	4. 해체주의적 경향	중세의 전통 거부	모더니즘적 사고관 탈피
복식	1. 에로틱한 여성인체선호	가슴, 허리, 엉덩이를 강조한 풍만한 인체형 선호	가슴, 허리, 엉덩이가 강조된 수퍼 모델형 인체형태 선호
	2. 에로틱 패션 경향	데콜레 네크라인에 의한 가슴 노출과 콜렛에 의한 인체선 강조	노출, 밀착, 비침에 의한 에로티시즘의 표현
	3. 복고주의적 경향	르네상스 초기 복식에 나타난 그리스 로마복식 스타일의 모방	과거의 복식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복고풍 의상 유행
	4. 소수집단 패션의 대중화 현상	군인집단의 슬래쉬	하위문화집단의 복식요소 (레이어드 스타일, 찢기, 구멍내기 등)
	5. 해체주의적 경향	코드피스, 언발란스 의장, 속옷의 노출 현상	기존의 복식규범을 완전 파괴하는 의상
	6. 노-매치 믹서 현상	귀족복식에 나타난 슬래쉬 장식	하이패션에 도입된 키취적 요소
	7. 성의 양성화 현상	스커트형태의 남성하의에 따른 X자 실루엣은여성복식 요소	서로 반대되는 성의 복식요소 및 복식 스타일 수용

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기존의 특권계층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탈 계층화 현상이 일어난 점 넷째, 기존의 억압적 권위에 대항하여 전통과 규범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자 한 "해체주의적 경향"이 나타난 점등이다.

복식에 나타난 유사성은 첫째, 인간의 감정적인 면과 현실에서의 삶이 중요해짐에 따라 르네상스 시대는 인간의 육체가 쾌락의 도구로 사용되어졌고, 포스트모던시대에는 여성의 인체가 성의 상품화 도구로 이용됨에 따라 가슴과 허리, 엉덩이의 곡선을 강조하는 에로틱한 인체를 선호하는 경향 둘째, 여성 인체의 성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경향에 따라 르네상스 시대의 가슴노출과 콜셋에 의한 과도한 인체곡선을 강조한 점과 포스트 모던시대의 노출, 밀착, 비침에 의한 여성인체를 강조한 에로틱 패션의 유행 셋째, 르네상스시대의 그리스·로마스타일, 포스트모던 시대의 과거 다양한 스타일을 재 창조하는 복고주의적 경향 넷째, 르네상스시대의 슬래쉬 패션, 포스트모던 시대의 히피와 핑크 패션 요소를 도입한 수수집단 패션의 대중화 현상 다섯째, 기존의 전통적 복식규범을 파괴하는 해체주의적인 경향 여섯째, 하류계층의 친한 복식요소들이 하이 패션에 도입되어 나타난 노 매치 믹서 현상, 일곱째, 르네상스시대 여성의 스커트와 실루엣이 비슷한 남성하의와 포스트모던 시대 여성의 복식요소를 도입하여 남성복에 나타난 성의 양성화 현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삶의 형태를 결정짓는 생활양식과 생산방식이 전혀 다른 두 시대를 비교하여 시대정신과 복식에 나타난 상관성(유사성)을 밝힌 연구로서 각 시대별 시대정신에 나타난 공통적 특성은 그 시대 복식이라는 조형물에도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참 고 문 헌

- 1) 김민수, 모던 디자인 비평, 안 그래픽스, 1994, 122-124
- 2)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솔, 1997, p. 124.
- 3) Laver, James, Fashion Makes Social History: In the House of Worth, N.Y.: The Brooklyn Museum, 1962, p. 6.
- 4) Ewing, Elizabeth,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London: B.T. Batsford, 1978, pp. 2-3.
- 5) Webster's 3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Merriam-Webster, 1981
- 6) Wilcox, D., In Search of God and Self, 차 하순 역, 이화문고, 1985, 83-85.
- 7) Burns, E. M, Lerner, R, & Meacham, S. 서양문명의 역사II, 박상익 역, 소나무, 1994, p. 504.
- 8) 차하순, 서양사 총론, 탐구당, 1983, 238-242.
- 9) 차하순, 르네상스의 사회와 사상, 탐구당, 1984, p. 54.
- 10) Fuchs, E., 풍속의 역사II: 르네상스, 이 기웅, 박종만 역, 까치, 1988, p. 5
- 11) Wilcox, Turner, The Mode in Costume, N.Y.: Charles Scrubnrt's Son, 1958, pp. 69-70.
- 12) Black, A., & Garland, M., History og Fashion, William Morrow & Company, 1974, p. 144.
- 13) Madan Sarap, Darrida, Foucault & Post Modernism, 임현규 편역, 인간사랑, 1991, p. 134.
- 14) 서성록, 한국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 미진사, 1993, p. 49.
- 15) Featherstone, M., In Pursuit of the Postmodern: An Introduction, Theory, Culture, & Society, 5, 1988, p. 207.
- 16) 김민수, op. cit., 120-122.
- 17)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솔, 1997, p. 120, 142.
- 18) 김옥동,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현암사, 1994, 225-226.
- 19) 김주영·양숙희, 현대복식에 나타난 "외부로 부터의 해체" 현상(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1(8). 1997, p1262.
- 20) 정홍숙, 포스트모던복식의 복고성에 관한 연구, 복식 25호, 1995, p. 74
- 21) Hauser Arnold, 근세편 上, p. 13
- 22)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 복식 37호, 1998, 109-110.
- 23) Burns, M., Lerner, R., & Meachem, S., 서양문명의 역사 II, 박상익 역, 소나무, 1994, 506-507.

- 24) 김옥동, *op. cit.*, 225-226.
- 25) 김지연, 전해정,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연구, *복식* 32호, 1997, 294-295
- 26) 김주현,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4-9.
- 27) Fuchs, Eduard, *op. cit.*, p. 2.
- 28) *Ibid.*, p. 5.
- 29) 중앙일보 1999년 5월 14일
- 30)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1996, 119-120.
- 31) Martin, Richard & Koda Harold, *The Historical Mode*, N.Y. : Rizzoli, 1989, p. 7.
- 32) Black, J, Garland, M, *op. cit.*, 146-147.
- 33) 이정후,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p. 31.